

## 自然 保護의 增大를

### —國立公園運動—

우리나라는 60年代 以後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生活安定 基盤을 造成하고 社會福祉를 追求함으로써 文化民族의 矜持를 지니게 되었다. 産業生産의 基盤擴充과 國土開發에 따라 山岳奧地로 알려진 곳까지 시원스럽게 뚫린 高速道路가 建設되는가 하면 곳곳마다 活力이 넘쳐 온國民의 마음이 밝게 펴지고 있다.

보릿고개를 意識하며 살아야 했던 農村의 어려운 生活이 새마을 運動에 밀려나가고 努力하면 잘 살수 있다는 信念이 確立되어 懶逸과 依存의인 惰性を 追放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處地를 깨달을 수 있었던 時代의 背景과 創意的 努力을 發揮할 수 있었던 즐기가 바탕을 이룬 것이다.

즐기로운 民族으로서 豐饒한 生活과 生을 享有할 수 있는 根本바탕을 이룬 것은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唯一한 財産인 國土·自然,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가꾸고 사랑할 줄 알았던 즐기와 피와 땀으로 지킬수 있었던 意志가 傳承되어 오늘의 榮光된 祖國을 建設하였고 人類共榮에 이바지하려는 民族의 矜持를 培養하면서 國力을 蓄積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差異가 많은 눈부신 發展相속에 한가지 아쉽고 永久福祉 基盤造成에 크게 염려되는 것은 國土開發에 따른 自然 保護 問題이다.

自然을 開發利用하는 것은 生을 維持하기 위한 必然的인 行爲의 作用임이 틀림없다. 즉 살기위해서 自然을 利用하지 않으면 안되는 自然과 人間에 얽힌 宿命이다. 이에 相反되는 또하나의 重大課題는 살기 위해서 自然을 保全하지 않으면 안되는 宿命的인 關係이다. 살기 위해서라는 目的은 同一하나 이를 追求하

는 手段으로서의 行爲는 너무나 엄청난 差異를 갖고 있으며 地球의 主人이며 自然의 支配者라는 人間能力의 限界를 가늠할 時機에 到達하고 있다. 이 時點에서 새로운 즐기를 發揮하지 않으면 生存의 威脅에 直面하게 된다는 事實을 自覺하고 自然利用에 대한 自制로서 保護活用할 수 있는 保全對象으로서의 價値를 再認識해야된다. 自然에서 財貨를 얻는 재미보다는 自然神秘를 視察하고 浪漫을 갖고 새로운 智慧를 터득하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는 自然愛護心을 키우는 일이 國土를 가꾸고 지키는 最善의 길이다.

政府는 이를 實現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國立公園制度를 設立하고 開發, 保護하기 위해서 政策的인 目標을 樹立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自然을 아끼고 가꾸어야 된다는 現實속에서 즐기와 意志를 傾注하고 試驗하는 段階에 들어선 것이다.

國立公園運動, 이것은 곧 自然保護運動이며 살기위한 運動이다. 國立公園運動은 이러한 重要性和 絕對的 必然성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의 피부로 直接느끼지 못하는 것은 生物의 屬性이 追求하는 一次的 慾求의 對象이거나 課題라기 보다는 次元이 높은 未來의 危險에 대한 先覺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를 믿고 協力하지 않으면 우리 後孫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진다는 것을 現實的인 重大課題로 받아들이고 解決하기위한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國立公園制度의 目的을 俱現하기 위한 國立公園運動에 온 國民이 參與하고 自然의 支配者로서의 位置를 지킬수 있도록 政府는 國民이 參與할 수 있는 機會의 提供과 與件造成에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하며 國民은 理解와 協力の 姿勢를 確立하는데 自信을 가져야 한다.